

장백산천지

제 364 호

2019 년 11 월 8 일

금요일

대만, 파룬궁 박해자 입국 금지

[밍후이왕] 대만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는 2019 년 10 월 2 일 국가안전국, 이민서 등의 부문을 초청하여 ‘국가정보사업법 부분조문 수정초안’을 보고했다. 이민서는 출입국사무팀에서 입법위원 왕딩위(王定宇)의 질의를 받았을 때 “파룬궁(法輪功)을 박해했거나 대만에서 규정을 어겼거나 법을 어긴 사람은 모두 입국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했다.

정부, 파룬궁 박해자 입국을 금지한다는 중대 선포를 하다

입법위원 왕딩위(王定宇)는 정보부문 업무 보고 중에 언급한 중국공산당 당정군(黨政軍)의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과거 몇 년간 대만에서 교류하거나 관광하러 온 인원수가 정보부문에서 실제로 파악한 것과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중국공산당 당정군 배경을 가진 사람이 대만에 온 인원수는 배 이상 차이가 날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사람들이 왜 신분을 감추는지, 그들이 대만 입국을 제지할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민서 출입국사무팀장 거광웨이(葛廣薇)는 말했다. “중국공산당 당정군이 대만에 오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이전에 가령 파룬궁을 박해했거나, 이전에 대만에서 규정을 어겼거나 법을 어긴 적이 있었던 사람”

왕딩위는 이는 이민서의 중대한 선포라고 하면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자 입국 금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대만 정부부처에서 말한 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파룬궁수련생, 악인 명단을 중국위원회에 제출하다

10 월 4 일, 대만 파룬궁수련생인 주완치는 말했다. “우리가 이민서 입법위원회에 질의할 때 중화민국 정부가 파룬궁을 박해한 사람이 대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긍정한다는 태도를 표명했습니다.” 금년 6 월 4 일 대만 파룬궁수련생은 10 만이 넘는 파룬궁 박해자 명단을 중국위원회에 제출하여 정부가 이런 악인명단에 오른 인권 악인들의 대만 입국을 빠짐없이 금지 할것을 바랐다. ◇

대만 린이탄관광지

소리 없이 축축히 만물을 적시네



[밍후이왕] 린이탄(仁義潭)은 대만 자이(嘉義) 지역에서 비교적 유명한 관광지다. 이곳은 중국관광객들이 아리산(阿里山)으로 오가는 중계역으로 부근의 호텔에 하루 투숙할 수도 있는데 저녁 식사 후 삼삼오오 혹은 무리를 지어 호텔에서부터 린이탄까지 산책하기도 한다.

천연의 불규칙한 모습으로 길고도 긴 호숫가의 제방, 반짝거리는 호수면, 잔잔히 끼는 안개는 긴 제방을 감싸고 있어 마치 하나의 그림 속에 들어선 느낌이다. 밤이면 호숫가에서 자연의 별이 총총한 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반짝이는 불빛은 사람들을 돌아가기 아쉬워하게 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호텔에서 린이탄까지 약 100m 사이에서 오가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리며 삼퇴(중국공산당, 단, 대에서 탈퇴)를 권하기도 했다.

겨울부터 더운 여름까지 해가 지고 달이 높은 하늘에 걸려 있을 때까지 수련생들은 이 길을 지키며 중국 관광객들을 기다렸다. 그들은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심신의 승화를 진술하며 중국인들이 파

룬궁 진상과 중국공산당의 사악함을 알게 되어 조속히 공산당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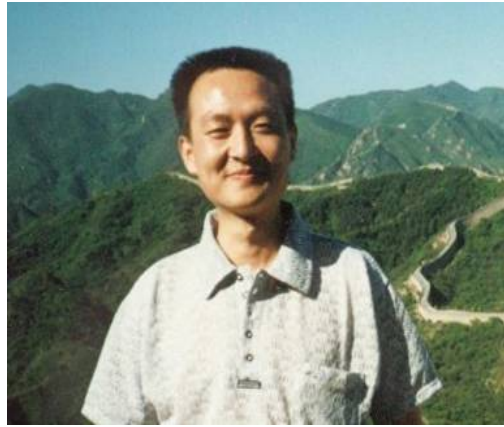
파룬궁수련생 리 씨는 매일 저녁 모두 이곳에 와 진상을 알렸다. 그녀는 말했다. “이곳은 중국 관광객들을 매우 쉽게 접촉할 수 있고 더욱 명백히 진상을 알릴 수 있는데 만약 중국 관광객이 삼퇴의 엄숙성을 이해한다면 곧 매우 쉽게 삼퇴합니다.

리 씨는 또 말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우리를 욱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웃으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리산은 해발고도가 비교적 높기에 내일 옷을 꺼입어야 합니다. 즐겁게 외출하고 무사히 집에 돌아가세요. 동포는 한가족입니다.’라고 알려주면 그들은 우리들의 관심을 느낄수 있어 다시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면 매우 쉽게 받아들여이기도 했습니다.”

리 씨는 감동하며 말했다. “중국 관광객은 사적으로 저에게 사실은 그들이 대만에 오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우리와 접촉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

‘자살당했다’에 관해 말해보자

중국 인권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 온 독자는 ‘자살당했다’라는 말에 낯설지 않을 것이다. ‘자살당했다’고 가장 자주 언급하는 기사는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박해를 받아 사망한 파룬궁수련생에 관한 것이다.



쥐즈강 (左志刚)



우징샤 (吳敬霞)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6월 13일까지 박해로 죽은 파룬궁수련생은 3559명, 그중에 의문투성의 죽음으로 ‘자살당했다’는 사건은 44건, 경찰에서 ‘자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고를 조작한 ‘허위 자살’ 사례는 104건으로 총 148건이다. 파룬궁 수련은 수련생들이 살생을 금지하고 자살도 할 수 없으며, 잔혹한 박해를 받더라도 여전히 자비와 선한 마음으로 박해자를 대하는데 어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의도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려 죄를 뒤집어씌우고, 범죄 사실을 감추는 것이다.

키 170cm인 쥐즈강(左志刚)은 160cm 높이의 문에 ‘목을 매다’

2001년 5월 30일, 33세의 하북성 석가장(石家莊)시 청년 쥐즈강은 이튿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석가장 교서(橋西)公安분국이 갑자기 그의 회사에 뛰어 들어와 강제로 그를 흥화(興華)가 파출소로 납치했다. 다음 날 오후 가족들은 쥐즈강이 자신의 반소매 상의로 파출소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쥐즈강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 그는 중국 주재 필립스사(菲力普)의 우수한 전기 정비 엔지니어인데 왜 결혼 전에 자살하겠는가? 가족들은 화장터에서 많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시체의 목 양쪽에 가느다란 흔적의 뚜렷한 상처가 있었는데, 주변에는 아직 핏자국이 있었다. 또 자주색을 띤 등 부위에는 한 치 정도 떨어져 있는 매우 뚜렷한 두 개의 상처 구멍이 있었다. 머리에는 상처가 있고, 왼쪽 얼굴과 볼에는 둔기에 맞아 생긴 멍이 있었으며, 오른쪽 귀는 온통 자색이었다. 키 170cm인 쥐즈강이 160cm 높이의 문에 다리를 구부려 목을 매달았다고 했다. 그의 아버

지는 아들이 건강해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치면 땅을 밟을 수 있는데 어찌 사망할 수 있고, 또 반 팔 상의로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도 어려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캐물었다.

하북성 석가장시 검찰원의 검찰기술감정서에 따르면 검시관은 간단한 표면 검사만 했을 뿐 목을 매어 죽었다는 특징이 뚜렷하지 않아서 자살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公安부문은 부검 보고서를 가족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시신을 화장하도록 계속 재촉했다. 5월 30일 그날,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던 석가장시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일순간 심상치 않은 추운 날씨로 변하면서 온 하늘에 큰 눈이 내렸다. 그후, 석가장시에서는 역병이 돌아 인심이 흉흉했다.

여성은 모유수유기간에 ‘목을 매 자살당하다’

29세의 산둥성 웨이팡(濰坊)시 여성 우징샤(吳敬霞)는 15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었다. 2002년 설달 초닷새날, 그녀는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붙잡혀 강제로 세뇌반에 감금됐는데 3일 후 가족들은 그녀가 ‘목을 매 자살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우징샤는 모유수유기간이었지만 공안은 그의 앞가슴 가장 예민한 곳에 전기봉으로 심한 검은 점이 생길 정도로

4~5 곳에 감전시켰다. 죽은 그녀의 얼굴에는 휴지가 덮여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등 뒤는 맞아서 검푸르고, 목에는 또 빨간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가족들이 시신에게 옷을 갈아입히다 골반이 부러지고, 뼈조각이 살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보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박해자는 또 시신을 강제로 화장했고 주요 가족은 엄밀하게 감시(監控)해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했고, 친인과 친구들도 그의 집에 와서 문안(探望)을 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촌마을마저 감시당해, 소식을 봉쇄했다.

쥐즈강, 우징샤의 비참한 조우는 소수의 몇개 안건만이 아니다. 이것은 천만 중국대륙의 파룬궁수련생이 받은 박해의 축소판이다.

하나 하나의 피눈물나는 고문 사건에서 각 지역의 노동교양소, 구치소, 감옥에서 악행을 저지른 경찰들의 죄는 물론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배후에서 조종하고, 용인하고, 묵인하고, 감싸주고, 장려하는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이런 최악의 가장 큰 근원이다. ◇

그들은 우리 삶에 빛을 주었다

글/중국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젊은 사람이 마라탕을 먹을 때 식당 사장의 딸이 귀여워 아이를 놀렸다. “이모가 좋다고 말하면 너에게 어묵을 하나 줄게.”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엄숙하게 말했다. “엄마가 우리 식당의 마라탕이 깨끗하지 않다고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중국의 쓸쓸한 현실을 반영했다. 무엇을 만들면 그것을 먹지 않는다. 내가 부실 공사를 하면 나는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내가 저질 식용유, 독 분유를 만들면 난 먹지 않는다. 내가 독성 백신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 공업폐수로 강물을 오염시키고 난 마시지 않는다. 사람마다 모두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할 때 사람마다 피해자가 된다. 먹고 입고 거주하고 행하는 각 방면에서 안전문제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집어 삼키고 있다. 중국은 예로부터 ‘인의예지신’이 있고 “자기가 싫은 것은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지금 모두 반대로 됐다.

현 중국은 어지럽고 사람 마음이 예사롭지 않으며 탐오 부패하고, 교사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아이는 차별대우를 받고 의사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환자는 애를 먹어야 한다. 접대하지 않고 선물을 주지 않으면 일 처리를 할 수 없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유괴될까 봐 두려워하고 부모가 외출하면 사기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좋은 마음으로 노인이나 임산부를 부축해주면 오히려 뜻밖의 재난을 불러올까 두려워한다. 도덕이 급속히 타락하는 사회에 대면해 많은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거센 물결에 따라가는데 중국 어디에 정토(淨土)가 있느냐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한 무리 사람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수도 구하지 않는다. 이런 평범하고 고귀한 동포는 세속에 맑은 샘과 같고,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있으며, 사회를 위해 빛과 희망을 줬다. 이런 사람은 믿음만한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밍후이왕에서 일부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보자. (간략)



한마음으로 환자를 위한 의사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다른 건 다 있어도 되지만 병이 있으면 안 된다.” 반평생 저축한 돈도 큰 병에 걸리면 아마 모두 탕진해버리고 심지어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 의료진은 본래 신성한 백의의 천사이고 병을 치료해 사람을 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고 부상자를 구한다. 그러나 지금은 ‘의사 상인’, ‘하얀 늑대’라고 부르고, 뇌물을 받고 선물을 받는 현상이 이미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 많은 의료진은 기를 쓰고 비싼 약을 처방해 주고 검사 항목을 늘려 인센티브를 받는다.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몇백원이 든다.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재산을 탕진한다. 이런 현상은 중국공산당이 ‘약값으로 병원을 먹여 살리고’ ‘모든 것은 돈으로 본다’는 것을 제창해 조성한 나쁜 결과다. 환자와 가족은 급히 병을 치료하려 하기에 마치 도마 위의 고기처럼 유린당한다. 많은 가난한 국민은 병을 보지 못하고 입원하지

못하고 ‘병원’만 바라보고 집에서 버티고 있다. 만약 아래 문장에서 진심으로 환자를 배려하는 양심 있는 의료진을 만나면 정말로 환자의 행운이다.

‘의사 스스로 자신의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한 군의관의 기이한 인연

왕웨이전(王衛真)은 전 선양 군부 대련의학과등전문학교 교직원이다. 상교(上校) 계급이고 부사급(副師級) 대우에 기술은 7 급이다. 그녀는 제 4 군 의대를 졸업했고 나중에 대련의학전문학교로 전임됐다. 그녀는 부대 병원에서 심혈관 내과 의사다.

1996 년, 40 세였던 왕웨이전은 온몸이 병이었다. 급성 류머티즘 심장병, 만성 B형 간염, 조기 간경화, 요추디스크, 심각한 빈혈, 부인과 질환, 비염, 발등뼈 관절이 어긋났고 각종 질병이 있어 자주 입원했다. 때로 1 년에 반년은 입원해야 했다. 체력이 극도로 떨어져, 약해서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 같았다. 그때 그녀는 군 병원에서

일하고 그곳의 기술이 뛰어나고 의료 조건도 좋았지만, 자신은 병에서 벗어나게 할 힘이 없어 괴로워했다.

이때 그녀는 운 좋게 ‘전법륜’을 볼 수 있었다. 책에서 ‘진선인(真善忍)’의 이치와 간단한 논술이 그녀를 깊이 탄복하게 했다. 그 후부터 왕웨이전은 변했다. 그녀는 매일 초조하고 거칠고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낙관적이고 너그럽고 선하고 무사하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람으로 변했다. 동시에 그녀의 모든 질병은 단기간 내에 철저히 사라졌다. 이것은 현대의 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 후부터 20 여 년간 그녀는 약 한 알 먹지 않고 주사 한 대 맞지 않으며 입원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이 건강하고 혈색이 좋으며 몸이 가벼웠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왕웨이전은 더욱 부지런히 일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병원에서 업무가 (뒷면에 계속)

(앞면의 계속) 뛰어났고 책임감이 강했고 태도가 좋은 의료인으로 공인받았다. 매번 응급구조를 받은 환자는 내심에서 우러나와 그녀에게 감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했다. 이전에 왕웨이전 집 냉장고는 받은 음식을 다 채우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줘야 했다. 하지만 파룬궁을 수련한 후 선물은 전혀 받지 않고 때로 돈을 줘도 그녀는 모두 원금대로 돌려주고 돈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퇴직 후 개인 병원에서 출근했고 환자가 그에게 돈을 주면 그녀는

마찬가지로 돌려줬다. 때로 돌려주지 못하면 병원 원장에게 주며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왕웨이전의 남편은 기관 노동조합 대표이기에 상가에서 선물을 주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남편도 왕웨이전의 영향으로 선물을 받지 않았다.

직장에서 집을 분배할 때 집을 분배받아 열쇠만 받으면 됐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을 달라고 하자 왕웨이전은 그 사람에게 줬다. 그녀는 대신 산에 붙은 집을 받았다. 직장에서 등급을 평가할 때

경쟁이 치열했다. 그녀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다. 왕웨이전의 행동은 주변 동료들을 감동하게 했다. 직장의 많은 동료는 그녀를 따라 파룬궁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1999년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왕웨이전이 7 차례나 납치돼 불법적으로 라오닝성 여자감옥에 갇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틀렸나요?” ◇

사고와 판단



파룬궁 서적에서 살생과 자살은 모두 죄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진정한 수련인은 자살, 분신자살을 하지 않는다. 모든 파룬궁서적과 영상 자료는 모두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해외에도 많은 파룬궁에 관한 정면 보도가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박해가 시작해서 부터 파룬궁서적을 대량적으로 소각했으며, 인터넷에서 일체 파룬궁의 정면 정보를 봉쇄했으며, 사람들이 사실 진

상을 요해하는 것이 두려워 파룬궁과 관련되는 단어를 민감한 단어로 설정했다.

중국공산당의 보도한 일부분 자살, 살생같은 괴이한 일은 박해 전에는 종래로 있어본 적이 없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나쁜일들이 갑자기 매체에 끊임없이 나타나는가? 무엇때문에 국외 고도로 자유된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괴이한 일들이 종래로 있어본 적이 없었을까? ◇

연변 박해소식

◎훈춘시 파룬궁수련생 지권(季君) 납치되다

60 여세인 훈춘시 여성 파룬궁수련생 지권은 2019년 10월 18일에 납치돼 연길구치소에 불법감금 당했다.

◎ 왕청현 파룬궁수련생 판옌칭(范燕清)이 핏박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2019년 9월 9일정심, 5명이 외지 경찰과 사복경찰이 왕청현 춘양진 파룬궁수련생 판옌칭의 집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판옌칭이 집에 없는것을 보고는 판옌칭의 남편 왕롄천(王连臣)을 집에 가두고 아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대라고 욕박질렀다. 그때 판옌칭은 집 울안의 다른 한 집안에 있었고 그녀는 남편 그쪽의 정황을 발견하고는 기회를 타 피했는데 경찰

은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후 그들은 그녀의 집을 뒤집었을 뿐 아니라 또 그녀집 울안과 집위에 3개의 카메라를 설정했는데 그것을 이용해 판옌칭을 불법체포 하려는 목적임을 똑똑히 보아낼수 있다. 이런 경찰들의 유망행위는 정말로 불법천지이다! 최후에 그들은 또 집안에 있는 대법서적과 3년간 보존했던 <밍후이주간>, 컴퓨터 2대, 여러개 핸드폰 그리고 집에 있던 신분증, 결혼증, 집조와 각종류의 은행카드까지 전부 가져갔다. 동시에 판옌칭의 남편을 데려갔는데 지금까지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없다. 현재 판옌칭은 줄곧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 도문시 파룬궁수련생 왕위샤(王玉霞)납치 상황 보충

10월 23일 정심 11시 좌우, 도문시국보대대 경찰과 석현파출소경찰 일행 4명이 파룬궁수련생 왕위샤의 집에 뛰어들어 왕위샤를 찾지 못하자 그의 아버지 집으로 향했지만 또다시 찾지 못하자 그녀의 직장으로 뛰어들어 왕위샤를 납치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수색했다. 왕위샤는 현재 불법으로 도문시 안산구치소에 감금돼 15일 불법구류 당했다.

사전에, 도문시국보대대 경찰과 석현파출소경찰은 여러차례 여러명 석현파룬궁수련생을 소란했다. ◇